

〈즉문즉설(則問則說)〉의 수사학적 설득 요인*

- 에토스와 파토스를 중심으로 -

이은자*

Ⅱ 차례 Ⅱ

- I. 머리말
- II. 법륜의 에토스
- III. 깨달음의 파토스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수사학에서 거론하는 에토스와 파토스를 중심으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에 나타난 수사학적 설득 요인을 살펴보았다.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의미하는 에토스는 두 가지 의미로 수사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도덕성 그 자체를 의미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와는 무관하게 청중에게 신뢰받을 인품이 드러나도록 말로 설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법륜이 종교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로서 펼쳐 온 범종교적 사회활동은 ‘훌륭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에토스’를 충족시킨다. 뿐만 아니라 ‘즉설’에서 언술로 보여준 법륜의 수사학적 전략은 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에토스의 진정성도 확보한다.

청중의 감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설득 방법인 파토스는 법륜이 청중들에게 주는

* 이 논문은 2013년도 숙명여대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이 글은 특정 종교나 단체 혹은 법륜 스님에 대한 어떠한 의도도 없음을 밝혀둔다. 학회의 취지와 성격의 테두리를 넓혀 관용으로 본 논문을 포용한 학회 관계자 여러분과 부족한 논문의 심사를 맡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교양교육원 조교수

독특한 긴장과 이완의 감정에서 완성되고 있다. <즉문즉설>에서 법륜이 청중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감정이입이나 동감 혹은 긍정의 방식이 아니라 ‘부정’과 ‘꾸짖음’이 주는 긴장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긴장을 이완시키는 ‘유머’가 있기에 가능하다. 그의 유머는 청중이 예측하는 종교인에 대한 성스러움이나 엄숙함의 기대치를 깨는 엉뚱함과 반전에서 극대화된다. 청중들은 ‘즉문’과 ‘즉설’에서 반복되는 질책의 긴장과 유머의 이완 속에서 마음의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법륜이 <즉문즉설>에서 청중을 설득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청중들의 모든 번뇌와 고민이 헛된 욕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모색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래 전 붓다가 중생을 교화시키기 위한 설법(說法)과 매우 닮아있다.

주제어 : 법륜, 즉문즉설, 수사학, 설득, 에토스, 파토스, 부정, 꾸짖음, 유머, 깨달음, 붓다, 설법

I. 머리말

<즉문즉설(則問則說)>은 미리 준비되거나 짜여진 대본없이 청중의 즉문에 법륜¹⁾스님의 즉설²⁾로 이루어지는 대중 강연이다. 강연이라고는 하지만 일정한 주제에 매인 일반 연설이나 강연과 달리, 현장의 청중과 일문일답의 대화로 소통함으로써 질문자가 답을 스스로 깨우쳐 나가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륜식 설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5월 <희망공감, 청춘콘서트 1.0>³⁾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큰 반

1) 재단법인 평화재단 이사장

2) 즉답이 아니고 즉설이라고 한 것은 ‘인생에는 답이 없고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자리’(pomnyun.tistory.com 참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3) 2011년 5월 평화재단에서 안철수, 박경철을 주축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토크쇼 형태의 강연을 마련한 데서 시작하여 2011년 10월 법륜스님, 김재동, 김여

향을 일으켜 확대된 <죽문죽설>은 2013년 한 해만 전국 100회 연속 강연의 기록을 세웠고, 전국은 물론 해외 강연⁴⁾까지 대중의 엄청난 호응 속에서, 기하 ‘들판에 단을 메고 대중에게 불법을 전파했던 부처님의 야단법석⁵⁾을 현대적으로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팟캐스트에서 제공되는 분절된 콘텐츠만 해도 1000회⁶⁾를 넘고 있어, 이제 법륜은 스님이 아니라 종교를 뛰어넘는 국민 ‘멘토’ 혹은 ‘힐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법륜의 강연이 이처럼 범종교적 차원에서 엄청난 청중을 확보하는 대중적 설득력을 갖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 글은 <죽문죽설>⁷⁾이

진 등을 멘토로 <청춘콘서트 2.0 청춘, 외치다>가 진행되었다.

4) 정토회(www.jungto.org)에 따르면 2011년 100회, 2012년 300회, 2013년 100회, 그리고 2014년 올해 남은 일정 전부가 전세계 115개 도시 ‘세계100회’ 강연으로 짜여져 있다.

5) 야단법석(惹端法席)이란 본래 부처님이 대중에게 설법을 베풀기 위해 야외에 설치한 법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법당이 좁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없으므로 야외에 단을 펴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자 한 것을 말한다.

6) 2014년 10월 21일 현재 기준 ‘법륜의 죽문죽설’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www.youtube.com) 동영상으로는 1000회, 팟캐스트(pod cast) 음성으로는 860회분이 올라 있다(1회분은 2010년 10월 20일 불교동영상강의(buddhastudy.egloos.com)에 탑재). <죽문죽설>의 청중은 현장의 청중뿐 아니라 유튜브나 팟캐스트 청중은 물론이고 책과 테잎으로 출간된 『죽문죽설』(정토출판, 2006, 13만 6000부 판매), 그리고 <죽문죽설>의 내용이 녹아있는, 『스님의 주례사』(휴, 2010, 24만부 판매), 『엄마수업』(휴, 2011, 14만부판매), 『인생수업』(휴, 2013, 발간 5개월만에 100만부 판매)등의 베스트셀러 독자(유사독자)까지 청중의 범위에 넣는다면 중복되는 수를 감안하더라도 그 정확한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죽문죽설>이 철저히 현장에서 일회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동영상이나 저작물이 그 현장성과 일회성을 극복하여 파급력을 높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팟캐스트 매체의 특성과 관련된 청중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관점과 방법론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7) 본 논문의 텍스트는 정토회가 제공하는 무료 팟캐스트(pod cast) ‘법륜 스님의 죽문죽설’이다. 법륜이 강연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분절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선별하여 올린 것이라 하더라도 한 단위 안에 내용은 편집되지 않은 그대로이다. 앞으로 본문에서 인용되는 텍스트는 팟캐스트에서 제공하는 회수만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는 설득 요인이 무엇인가를 수사학적 측면에서 살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법륜의 <즉문즉설>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이란 법륜의 <즉문즉설>이 청중에 대해 의도하고 있는 설득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법륜의 <즉문즉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설득력을 갖게 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현대를 가히 ‘범-수사학(Pan-Rhetoric)의 시대’⁸⁾라고 부를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학이 거론되고 있다. 대중 연설에 대한 수사학적 접근은 주로 대통령 연설을 중심으로 논의⁹⁾되는 경향이 많고, 기독교 설교학의 중심 주제로도 꽤 오래 전부터 많이 연구¹⁰⁾된 편이다. 불교계에서도 포교 활성화 위한 효과적인 방법 논의가 커뮤니케이션 범주 속에서 거론¹¹⁾되고 있지만 스님 설법의 구어 담론에 대한 실제적 고찰은 그 중요성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

근대 이후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자 변화는 불교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다. 포교가 그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 있음은 물론이다. 스님의 설법

을 제시하기로 한다.

8) 양태중, 『수사학의 오늘과 내일』, 『독일어문학』27, 한국독일어문학회, 2004, p.2

9) 이귀혜의 『한국 대통령들의 설득 수사학: 에토스·파토스·로고스 개념을 중심으로』(『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8, 2007), 『한국 대통령들의 위기 수사학에 관한 연구』(『한국언론학보』51-6, 2007), 박성희 외의 『수사적 상황과 역할에 따른 대통령 수사학 장르 분석』(『수사학』19, 2013) 등의 논문이 있다.

10) 서동원의 『곽선희 목사의 설교에 대한 수사학적 조명과 분석』(『설교한국』3-2, 2011), 문영식의 『수사학의 활용방식으로서 설교와 설득의 문제』(『신학과 철학』18, 2011), 허요환의 『신학과 수사학의 만남으로 바라본 설교』(『장신논단』45-4, 2013), 송두호의 『종교지도자의 레토릭과 설득의 신학』(『한국기독교신학논총』67, 2010) 정인교의 『설교는 수사학을 필요로 하는가?』(수사학회 월례학술발표회, 2004) 등의 연구가 있다.

11) 최승천의 『불교포교에 있어서의 대중매체의 활용연구』(『불교대학원논총』5, 1998), 고영섭의 『불교경전의 수사학적 표현의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윤영해의 『한국불교의 도심포교와 대중화 연구』(『불교연구』26, 2007) 등의 연구가 있다.

능력은 포교¹²⁾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중을 설득해야 하는 설법에서 스님이 수사학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설법은 종교 수행자의 독백이 아니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진리 전달이라는 목적적 차원에서도 수사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³⁾ 설법에서 수사학은 종교라는 토대 위에서 전하려는 붓다의 진리가 청중에게 잘 수용되도록 조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즉문즉설>에서 청중의 질문에 법륜이 답한 내용이다.

(질문: 좋은 강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능력도 없는데 잘하려고 하면 떨어. 반응은 청중이 하나씩 독재하지 말고 그들의 권리를 그들에게 돌려줘라. ...중략... 대중의 관심사가지고 자기 얘기,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 얘기 솔직한 얘기, 저급하면 호응이 없다. 인기 있는 거 조절해야 한다. 재미도 있고 내용도 있고 저급하지 않으려면 연습할 수밖에 없다.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578회)

12) 한국의 종교에서 불교계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포교 방법이 원인이라는 지적(박경준 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불교포교 고찰』, 『한국선학』28집, 2011, p.376)이 있다. 김응철은 한국 불교계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법 능력, 지역주민들이나 비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득능력의 부족, 지역주민들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상담능력 등의 분야에서 스님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응철, 『한국 불교의 포교현황과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선문화연구』3집, 2007, p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즉문즉설>이 팟캐스트 조회수 1위를 기록한 것은 불교의 대중화를 넓히는 포교 방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문즉설>에서 법륜의 답은 적극적인 사회적 포교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3) 정인교, 『설교는 수사학을 필요로 하는가』, 한국수사학회 월례학술발표회, 2004, p.34

위의 인용을 보면 법륜 스님이 의도적으로 수사학적 전략을 활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중을 설득하는 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학은 말을 꾸미고 장식하는 의미의 ‘말 잘하는 기술’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즉문즉설>의 설득 요인을 고대 수사학에서 끌어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말하는 사람의 인품, 청중을 사로잡는 방법, 논증 자체에 있다”고 하면서 수사학을 “모든 주어진 것에서 설득적인 것을 사변적으로 발견하는 능력”¹⁴⁾이라고 정의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이며, 청중의 관심,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화자가 지녀야 할 성격”이고, 파토스는 “청중의 마음 상태나 반응 즉 심리적 경향, 욕구, 정서”를 포괄하며, 로고스는 “논지 자체의 설득력으로 논증 또는 논거 방식들”에 관련된다.¹⁵⁾ 흔히 ‘에토스(ethos)=화자, 파토스(pathos)=청자, 로고스(logos)=메시지’라는 커뮤니케이션 도식이 성립된다. 즉 대중 연설에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품성을 동원하여 말하는 사람의 공신력이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고안해야 하고, 정서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감적 표현이 고려되어야 하고, 논리적으로도 입증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수사학은 그리스 로마의 민주주의 전통 속에서 구어로 형성된 공론의 장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¹⁶⁾ 말이 소통되는 구체적인 현장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는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속한 폴리스, 즉 사회 속에서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다할 때만

14) 아리스토텔레스, 이종오 역, 『수사학』1, 리젬, 2007, p.58.

15)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0, p.46.

16) 김현, 『동서양 비교수사학의 출발점에 대한 제안』, 『서강인문논총』 26집, 2009, p.170.

언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사회적 기능이란 이성과 말을 통해 실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연설을 통해 청중을 설득하는 기술, 레토리케(rhetorike), 곧 수사학이었다.¹⁷⁾

그러나 이러한 본래 서구의 수사학은 동양에서 ‘수사(修辭)’로 번역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문장을 꾸미고 장식한다는 기술적 의미로 축소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거론하는 수사학은 단순히 연설하는 기술이나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에 대해 설득력 있는 요소를 통찰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본 논의에서 에토스와 파토스를 중심으로 수사학적 설득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에토스와 파토스의 설득 방식이 감정, 정감적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성적 요소인 로고스와 구분되기 때문이다. 제한된 지면관계로 ‘로고스’에 대한 논의는 법륜 메시지에 담긴 불교적, 철학적 고찰 이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II. 법륜의 에토스

서구의 수사학 개념으로 보면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이며 청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인격 혹은 성격을 말한다. 청중에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일차적인 설득 방법

17) 김현, 『서양 고대의 레토리케 전통 고찰과 한국의 수사학 전통 이해를 위한 제언』 (『수사학』 3집, 2005) 김현의 논의를 따른다면 여기서도 ‘레토리케’로 해야 맞지만 ‘수사학’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자 한다. 불교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이해 없이 <죽문죽설>만 듣고 수사학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문죽설>은 왜 필자와 같은 대다수 청중을 설득하는가 하는 점이 본 논의의 핵심이다.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를 중요한 설득 수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 성품이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면 충분히 설득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믿을 만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의미하는 에토스는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데, 두 가지 의미로 수사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즉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도덕성 그 자체를 의미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의 인품 자체와는 무관하게 청중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품을 드러나도록 말로 설득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¹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토스의 개념은 후자에 가깝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상반된 것은 아니지만 에토스를 과연 어떤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냐에 따라 그 수사학적 설득 요인 또한 달리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죽문죽설>에서 법륜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설득력은 에토스가 가지고 있는 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법륜의 인격과 도덕성은 그가 ‘스님’이라는 점만으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도덕적 지지를 얻은 상태다. 그러나 종교인도 심심치 않게 대중들에게 실망을 주고, 검색 하나로도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대 한국사

18) 박우수는 에토스가 그 인격과 도덕성이 말하는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중에게 그러한 사람처럼 드러나 보이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에토스에 대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두 주장으로 나뉘어지는데 말하는 사람의 인품이 말을 통해서 그대로 체현되고 배어난다는 주장과 말의 설득력이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얼마나 잘 적응시켜 호응하도록 만들어내느냐 하는 면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전자를 플라톤식의 이상적인 견해라고 본다면, 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식의 현실적인 견해를 각각 대변한다(박우수, 『동서양 수사학 전통에서 본 에토스와 문화』, 『외국문화연구』26, 2007 참조).

회에서 종교인이라는 것만으로 설득을 보장받기 어렵다. 법륜의 에토스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나 조직 단체 등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관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에토스와도 관계된다. 대중들의 지각과 판단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일종의 공신력으로서 업적이나 훌륭한 생활로 이루어진 사회적 혹은 도덕적 명성과 다르지 않다. 법륜이 출가 이후 종교지도자, 사회운동가 혹은 환경운동가로서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 온 행적은 종교적이라기보다 범사회적이고 범인류적 공헌에 가깝다. 이는 충분히 청중의 관심과 신뢰를 얻을 만한 이유가 된다.

법륜이 사회변혁운동에 관심을 두고 사회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만드는데 관심을 집중해 온 근거는 분명해 보인다. 그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네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비전과 실천적 모범을 제시해야 할 것, 둘째 전 인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3세계의 기아.질병. 문맹의 고통 속에 사는 12억이나 되는 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것, 셋째, 전민족적으로 본다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는 2000만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확대와 NMD반대, 신무기 구입반대, 군비축소, 핵무기 반대 등 평화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넷째 개인적으로 본다면 욕심을 버리고 부지런히 수행정진해서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자신을 해방하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사회건설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19)

중요한 것은 그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구호나 명분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실천적 활동의 구체적 성과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죽문죽설>을 주

19) 법륜, 「남북통일 문제와 불교」, 『불교학연구』, 2001, p.72.

관하고 있는 정토회²⁰⁾는 법륜의 공동체 운동을 실현하는 단체로서 영향력 있는 불교 단체로 인정받고 있고, 불교와 환경운동²¹⁾의 구체적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북한 난민돕기 운동²²⁾은 물론 범지구적 차원에서 기아-질병-문맹 퇴치를 위한 국제활동²³⁾까지 활발하게 펴고 있다. 법륜의 이러한 사회활동은 불교계 전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비해 오랜 세월 동안 ‘은둔의 종교’로 인식되어 왔던 불교의 이미지를 깨고 불교의 대중화 혹은 참여불교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이다.

법륜의 <즉문즉설> 하나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회 운동의 가장 기초적

20) 1988년 정토포교원을 개원으로 시작된 수행공동체이다. 정토회는 작은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인류라는 최대의 공동체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법륜 스님의 공동체론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수행, 보시, 봉사로 대중 불교 운동을 왕성하게 하는 영향력있는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21) 불교환경교육원은 국내 최고의 환경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10여년 동안 1천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생태학교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젊은 활동가들 가운데 이곳을 안 거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불교적 환경교육의 산파역을 담당해 왔다. 정토회 산하 환경운동단체인 에코붓다(Eco-Buddha)는 1991년 창립된 불교환경단체로서 자연과 조화되는 가치관과 생활양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수련 등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2) 1996년에 창립된 사단법인 ‘좋은 벗들’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인 북한식량난과 난민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난민지원사업, 갈등 분쟁의 해결을 위한 평화운동, 인권운동을 전개해 왔고, 현재 북한소식지를 발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정토회의 실무력과 재정 지원으로 2004년 11월에 ‘평화재단’이 정토회와는 별개의 독립 단체로 설립되었다. 이곳은 동아시아와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 교육활동을 활력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냉각된 남북관계를 새롭게 잇는 종교 간 연대, 사회 원로들 간의 모임과 실천도 주선하면서 민간 부문에서 평화와 남북문제에 관한 가장 큰 싱크 탱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3) 1991년 설립된 국제미간구호단체 (사)제이티에스는 1993년 인도헌지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해 온 2007년 UN ECOSOC의 특별 지위의 국제 NGO로 승인된 불교계 최초의 국제 NGO이다. 가장 천대받는 불가촉천민이 모여사는 비하르 주 등게스리 마을에 학교를 설립한 이후, 주변 15개 마을에 무료진료와 지역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인 토대가 됨을 알 수 있다. <즉문즉설>은 법당이나 사찰에서 불자를 기다렸다가 일방적으로 연설을 하는 강연이 아니다. 법륜은 전국은 물론 해외까지 장소 불문하고 대중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일문일답으로 그들의 고민을 듣고 ‘희망세상 만들기’를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복지나 교육, 혹은 수행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중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지게 한다. 요컨대 <즉문즉설>은 개개의 시민이 행복해야 비로소 타인과 더불어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 법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법륜은 시민 개개인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을 사회와 인류에 대한 공공선과 일치시키도록 설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 세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즉문즉설>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종교인으로서 도덕적, 사회적 명성을 가진 법륜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이상과 같은 요인이 법륜을 모범적이고 ‘훌륭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에토스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또 다른 의미의 에토스는 주어진 상황에서 청중을 설득하는데 동원되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언술 능력’으로 드러난다. 과거에 했던 행위로 고정되어 있는 성품이 아니라 말하는 과정에서 청중에게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말의 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타고난 천성이라기보다는 언어를 통해서 도덕적이고 고상한 인물로 보이도록 만드는 능력”²⁴⁾이다.

에토스가 말하는 사람의 품성을 의미하지만 법륜이 이론 명성이나 활동만으로 <즉문즉설>이 행해지는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청중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기는 힘들다. 법륜이 지닌 인품을 직접 대할 수 없는

24) 박우수, 앞의 글, p.198.

것이라면 어차피 청중들에게 알려진 사회적 명성이란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다. 불자도 아니고 법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라면 청중은 현장에서 직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 현장에서 들리는 언술 행위에서 그 사람의 성품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말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정보를 검증하고 신뢰감을 얻게 마련이다. <즉문즉설>이 대중들에게 확산된 것은 법륜이 이런 사회적 인품의 결과도 있지만, 법륜이 <즉문즉설>에서 풀어놓는 현장의 말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을 가능성이 높다.

즉 에토스는 현실적으로 언어 행위에 의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의 세 가지 품성으로 지혜, 미덕, 호의²⁵⁾ 등을 제시하면서 ‘웅변가가 이 모든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필히 청중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²⁶⁾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지혜는 통찰력과 신중하고 사려 깊은 능력을, 미덕은 연사의 도덕성을, 호의는 청중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호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질을 가진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언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문즉설>이 청중의 고민을 들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법륜의 ‘즉설’ 대부분은 질문을 한 청중들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 연설처럼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언술을 펴기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륜은 질문자의 답변 틈새에 청중의 호감과 신뢰를 얻는데 소홀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법륜이 자신의 에토스 즉 지혜, 미덕, 호의를 드러내는 사용된 수사학적 표현을 찾아보면 다양하다.

“전국 순회하면서 방방곡곡 다녀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즐긴다”(489회)

25) 실천지(phronesis), 덕(arete), 호의(eunoia), 혹은 신중함, 미덕, 호의 등으로 번역된다.

26) 아리스토텔레스, 이정오 역, 『수사학』 2권, 리젤, 2007, pp.13-14.

“인도, 북한, 기아문제 해결, 환경문제 등을 하려다닌다”(799회)

“2008년 70일 단식을 했다. 그래도 스님 화 안낸다”(388회)

“법륜 스님도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조금해 안하는 이유는 내 할 베이스를
깎아놓고 통일운동도 하고, 구호활동도 하고…”(640회)

“어제 밤에 원고를 쓰고 잠을 안자고 여기 강연을 왔다”(695회)

“나같이 사회를 변화하기 위해서 자기헌신을 하든지…”(860회)

“그래서 나는 중이 되었다”(589회)

그러나 이와같은 법륜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죽문죽설>에서 극히 드물게 언급되고 있다. 이점은 수사학적 전략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로 드러내는 에토스는 아이러닉하게도 ‘말한 사람이 소유한 특성이 아니라, 수용자가 말한 사람에게 부여한 특성’²⁷⁾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토스가 가지고 있는 역설은 에토스에 기댄 설득의 최종적인 판단은 듣는 사람의 몫이라는 점이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자랑으로 들리고 이는 오히려 그의 품성을 평가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컨대 정치가들이 스스로 도덕적 행동에 대해 자기 진술을 하면 오히려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죽문죽설>에서 사용되는 법륜의 에토스적 설득 전략은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드러난다. 법륜은 자신이 출가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룬 성과나 업적 등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청중의 불가피한 질문에만 대답하되 자신의 품성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을 조금 과시하여 제시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겸양 전략까지 에토스적 설득 전략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것은 그 말의 실체를 증명

27) 강태완, 『설득의 원리』, 페기수스, 2010, p.47.

할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특히 마지막 인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겸양 전략은 이미 상당한 지위를 자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잘못 표현하면 설득의 효과를 낼 수 없다. 스스로 ‘중’이라고 낮추는 것은 청중과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거리를 좁히고 종교적 지도자가 가진 권위적이고 엄숙한 인상을 벗어버리게 한다. 이는 법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자신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비종교인까지 포용하는 관용의 수사 전략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죽문즉설>의 에토스는 법륜의 성품이 주는 신뢰와 존경, 그리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언술의 수사학적 방식이 지원되면서 청중의 신뢰를 얻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법륜의 말이 아무리 청중을 사로잡는 언어라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화자의 건강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온전히 청중을 설득할 수 없으며, 또한 아무리 성품이 우수하고 훌륭하더라도 말로써 전하는 수사가 따르지 않는다면 에토스 요인을 온전히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법륜은 이 두 측면에서 <죽문즉설>의 청중을 설득할 에토스 요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Ⅲ. 깨달음의 파토스

말하는 사람의 품성에 관한 설득 수단이 에토스라면 파토스는 청중을 일정한 감정의 상태에 이르게 하여 감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설득 방법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파토스를 “설득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용자를 특정한 마음의 틀에 위치시키는 방법”²⁸⁾이라고 하였다.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파토스야말로 진정한 설득의 수사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에토스도 사실상 파토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에토스나 파토스 모두 청중에게서 확인되는 호감이나 지지와 정확하게 구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²⁹⁾

청중의 감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파토스는 우선 청중과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죽문죽설>이 진행되는 형식은 특정한 종교적 의식이나 절차 없이 일반 대중이 편안한 상태에서 질문하고 들을 수 있어서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다. 법륜도 청중들이 불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는 등 매우 기본적인 수사적 표현 전략³⁰⁾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죽문죽설>이 청중을 설득하는 결정적 요인은 법륜이 창출하는 매우 독특한 긴장과 이완의 파토스에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그 파토스가 대화의 일반적인 격률에서 예상되는 법칙을 의도적으로 위배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의 기본적인 격률 중의 하나는 상대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죽문죽설>처럼 개인의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최대한 그에 맞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통상적인 최고의 의사소통방법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예컨대 목사님의 설교나 상담사들의 상담에서 흔히 쓰는 파토스 전략이 그러하다. 상대에게 칭찬³¹⁾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강조하거나 감

28) 강태완, 『설득의 원리』, 페가수스, 2010, p.67.

29) 에토스나 파토스 모두 청중의 감성적 혹은 정서적 차원에 기대고 있어서이다.

30) 법륜의 언어는 대중을 설득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간결성과 명료성을 띄고 있고, 최대한 일상의 어법에 충실한 표현을 한다. 불가에서 쓰는 종교적 표현도 절제하고, 사용하더라도 쉬운 해설로 청중의 이해를 쉽게 한다. 질문하는 청중의 나이나 직업 혹은 학력 등을 고려한 표현은 물론이고 사투리 사용에 이르기까지 청중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표현도 동원된다.

정이입으로 말하는 상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답변자도 질문자와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거나 혹은 상대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청중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보장받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문죽설>에서 법륜이 청중을 설득하는 방법은 칭찬이나 감정이입, 혹은 긍정의 방식이 아니라 단호한 부정에서 시작된다.

“지금 남편을 고칠 수는 없어요”(145회)/ “그런 방법은 없어요”(325회)/ “남편과 이혼해라”(479회)/ “비법은 없어요”(601회)/ “아무 문제 없어”(606회)/ “그건 월급받고 사는 선생님이 할 수 없는 문제다(613회)/ “해줄게 아무 것도 없다”(802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719회)/ “머가 문제예요, 다 그런데”(860회)

질문자가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고민을 공개하면서 해결 방법을 구하는데 스님의 첫 대답은 항상 ‘방법이 없다’ 혹은 ‘문제가 아니다’ 식의 간결하고 단호한 부정이다. 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큰 고민을 아주 작고 보잘 것 없게 만들고, 질문자의 절실함조차 부정한다. 법륜은 청중이 원하는 해결 방법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질문자 스스로에게 있음을 꾸짖고 질책한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질이 좀 더럽다”(186회)/ “지금 배가 불러서 그래요”(329회)/ “땃가를 바라는 게 고뇌의 핵심이다. 땃가를 바라지 마라”(577회)/ “엄마니까 안 된다. 고쳐야 한다”(588회)/ “수행은 오직 자기만을

31)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덕의 길로 향하도록 촉구하는 것에 유사한 설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쾌락과 칭찬』, 『철학』93집, 2007, p.84.)

위해서다.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비수다”(597회)/ “내가 사랑하니 나도 사랑 해라. 이것은 독재다”(605회)/ “그건 사랑이 아니다. 집착이다. 병이다. 미처 날 뛰는거야”(616회)/ “엄마가 아들을 저렇게 못 믿는데 어떻게 잘 되겠 어”(675회)/ “생각이 잘못됐어”(761회)/ “그건 욕심이다”(860회)

법륜의 이러한 꾸짖음의 ‘죽설’들은 질문자나 청중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유발하게 한다. 질책은 충고나 칭찬과 마찬가지로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누구나 이러한 방법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상대에 대한 꾸짖음은 질문하는 자를 곤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청중에게 배타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다. 더구나 명령적 방식은 청중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질책이나 훈계는 청중 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이룰 때나 법륜처럼 도덕적, 사회적 품성으로 청중들에게 익히 안정된 에토스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물론 <죽문죽설>에서 이런 긴장 상태는 오래가지 않는다. 질문자의 미성숙함 그대로를 폭로하는 능청스러운 유머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법륜의 유머는 무거워진 청중들의 마음을 가볍게 끌어올려 그 심각성을 흐트러뜨린다.

“이혼남이 걸린다고 나쁜 거 아니야, 왜? 제품 실통치 않은 거 새 제품보다는 약간 누가 쓰다 버린 중고 중에 괜찮은 게 훨씬 더 좋아.”(277회)

“어떤 여자 분이 스님한테 참 정성을 들여서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요구하는 게 ‘나하고 결혼하자.’ 이러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306회)

“남의 인생에 신경 꺼!”(426회)

“탈모가 고생이야? 머리가 빠지니까 안 깎아도 되고 얼마나 좋으냐.”(494회)

“뒤에 와서 껴안아주면 뭐해 가슴만 답답하지. 여기 여자들한테 물어봐라 버리면 주어갈 사람 많다.”(493회)

“스님 나는 할 수 있나? 못해요. 나는 그래서 결혼 안했다.”(566회)

“자기가 바쁘면 여자를 하나 붙여줘라. 무슨 짓을 못해.”(570회)

“엄마는 남편한테 40년을 투자했다. 물에 빠지면 엄마 건지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꺼다 하면 천륜에 거스른다. 대주주가 누구냐 1번 주주 부모다. 대주주가 왔기 때문에 양보해야 한다.”(589회)

“적은 돈이라도 줘라. 성질 더러워서 싫다 그러면 내달라.”(612회)

“내 자식이 공부 못하면 그것은 다른 학생 돕는거다. 잘했다고 칭찬해줘라.”(675회)

“스트레스 받았다는 것은 시간이 남았다는거야. 옆에서 폭탄 떨어뜨리면 별떡 일어난다.”(695회)

“아따 골치 아프겠다. 내가 장가를 못간 것도 저런 여자 만날까봐 겁이 나가지고”(860회)

<죽문죽설>에서 청중의 폭소를 자아내는 장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죽문죽설>의 파토스는 범람이 던지는 유머에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머란 웃음을 유발하게 해주는 다양한 말과 행동들을 지칭한다.³²⁾ 유머를 형성하는 기본 원리는 의외성 즉, 부조화적이고 모순되는 생각이나 태도이다.³³⁾ 듣는 이의 예측을 빗나갔거나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32) 유머를 넓게 정의하면 유머는 의도적이든 실수에 의해서든 관계없이 남을 웃기거나 즐겁게 해 준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유머는 관용이나 자기 부정의 겸허함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철학적 의미에서는 부조화나 모순적인 것을 인식함으로써 일어나는 해방감, 완화감, 또는 위협이나 불편한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는 위안감 등이다(구현정, 『유머 담화의구조와 생성 기제』, 『한글』248, 2000.6, p.18 참조)

33) 불일치의 원칙은 유머의 중심적인 인지구조의 하나이다. Eysenck는 객관적으로 경험되는 부조화적이고 모순되는 생각이나 태도, 감정의 순간적인 직관적 통합에 의해 생기는 유머를 인지적 유머라고 하고 있다. Eysenck, H.J., “Appreciation of Humor an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32, 1942, pp.295-309.

어떤 의외의 내용이 제시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법륜의 답변은 기존의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성스럽고 권위적인 말과 거리가 있고, 관습화된 도덕의 범주를 깨는 자유로움이 있다. 법륜이 창출하는 유머는 청중이 예기치 못하는 생각의 반전, 즉 대화의 기본적인 격률 위배에서 오는 불일치에서 유발된다. 법륜과 같이 점잖은 신분일수록 유머의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청중이 예측하는 종교인의 엄숙하고 경건한 말과 배치되는 데서 오는 반전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저급한 유머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말로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유머는 고도의 수사학적 언어 전략이 있어야 가능하다. 놀라운 것은 법륜의 즉설이 모두 원고나 대본이 없이 그야말로 즉석³⁴⁾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청중들을 더욱 즐겁게 하는 요인임은 틀림없다.

법륜의 유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즉문즉설>은 법륜 ‘즉설’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청중들이 하는 ‘즉문’도 다른 청중에게 훌륭한 유머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청중들의 다양한 질문이 가지고 있는 희화성 덕분이다.

“초기에는 다들 그렇듯이 깨가 쏟아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멀어져서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제까지 그걸 한 십년 정도 반복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다시 또 예쁘고 성격 좋은 여자분들 보면 욕심이 또 일어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으면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결혼

34) 물론 즉석에서 나오는 법륜의 유머는 받아들이는 청중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또 <즉문즉설>의 회수가 늘면서 어느 정도 유사한 양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를 눈치 챈 청중, 예컨대 팟캐스트를 지속적으로 듣는 청자에게는 유머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듣는 현장의 청중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머가 가진 의미가 축소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269회)

“딸 결혼할려고 하는 거 내가 반대를 했더니, 머리깎고 스님이 된다는 등 그레가지고 범륜스님이 좀 거뒀주셨으면 좋겠습니다”(571회)

“꿈에서 외계인이 나타나 인육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다 꿈에서 깬데 스님이라면 그 꿈에 계셨다면 외계인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760회)

“나이가 70인데 마누라한테 인정을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게도 마누라한테 인정받고 살 희망세상이 있는지. 마누라하고 같이 왔으면 집에 가서 뜯겨가지고…”(787회)

이는 <즉문즉설>의 형식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장, 나눔의 장에서만 가능하다. <즉문즉설>을 구성하는 ‘즉문’은 종교, 비종교인을 떠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각계 각층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고뇌와 갈등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 질문이 결코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중과 함께 나누어질 때 웃음이 유발된다. 나에게서는 심각하지만 다른 청중에게는 다소 엉뚱하게 들리는 질문들이 그대로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 기제가 된다. <즉문즉설>은 이렇게 ‘즉문’과 ‘즉설’이 유쾌한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꾸밈음과 질책으로 긴장된 청중의 불편한 감정이 이완되고 마음의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종교인이 이끄는 강연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지루하고 단조로운 메시지로 구성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종교적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긴장 관계를 풀고 재미있고 유쾌하게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현대인들에게 유머는 단지 웃음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유효적절한 수사학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유머의 목적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청중들의 집중력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쉽고 명쾌하게 전달

함으로써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법륜의 꾸짖음과 유머는 기존의 상식과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헛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청중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 깨달음이 별거 아님을 느끼게 해주기 위함이다. 불교에서 최상의 목표는 ‘보리’ 또는 ‘각(覺,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 ‘깨달음’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 목표이자 최고의 단계이다. 법륜은 ‘인간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깨닫는 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문즉설>에서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파토스가 완성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붓다의 깨달음의 논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정과 꾸짖음, 그리고 유머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여 ‘깨달음’을 주기 위한 법륜의 수사학인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법륜의 <즉문즉설>이 가지고 있는 수사학적 설득 요인을 에토스와 파토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문즉설>이 청중을 설득하는데 성공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청중이 가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청중들에게 단편적이고 일시적 위로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즉문즉설>에서 계속되는 질책과 유머의 긴장과 이완 속에서 청중들은 잠시나마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또 모든 번뇌와 고민이 헛된 욕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깨닫고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처럼 법륜의 <즉문즉설>은 수사학이 의도하는 설득 이상의 결과를 준다고 생각된다. 이는 법륜이 붓다의 가르침으로 사회를 해석하고 중생의

안락, 중생의 행복 위에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는 대승불교의 전통에 충실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법륜은 붓다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 “바른 불교, 쉬운 불교, 생활 불교를 행한다면 누구든 일상 속에서도 해탈과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³⁵⁾고 강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불교에 문외한인 필자가 짧은 지식으로나마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는 것은 법륜의 <즉문즉설>에 나타난 수사학적 설득 방법이 붓다가 행한 중생 설법과 상당히 닮아 보인다는 점이다. 붓다의 설법은 위의교화(威義教化)와 설법교화(說法教化), 방편교화(方便教化) 등으로 설명된다. 붓다의 ‘위의교화’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감화시키고 마음을 일깨워주는 방법으로 위엄있는 용모를 통해 교화시키는 방법이다.³⁶⁾ 붓다의 오랜 수행과 인품이 대중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불러일으킨 교화의 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훌륭한 인품’으로 설득하는 에토스와 다르지 않다. 또한 법륜이 <즉문즉설>에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파토스는 듣는 이의 처지나 상태에 따라 알맞은 법을 행한 붓다의 설법 교화방식이기도 하다. 붓다는 “가장 훌륭한 보시란 법 보시요, 가장 훌륭한 말이란 선남자가 듣기를 원하면 때에 맞춰 법을 연설하는 것이다.”³⁷⁾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붓다 설법의 정점은 그 모든 설법이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방편 교화’에 있다. 그 유명한 ‘뗏

35) 법륜, 『깨달음』, 정토출판, 2012, pp.192-193

36) 강기선, 『十二分教의 수사기법과 붓다의 교화방법』,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4집, 2001, p.157.

37) 정순일, 『원불교 설교학』,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3, pp.25-26.

붓다의 설법교화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고 한다. 대기설법이란 붓다가 듣는 사람의 이해능력에 맞추어 거기에 맞게 설법하는 것을 말한다(원불교대사전 참고). 붓다의 설법교화에는 비유, 문답법, 전의법 등을 든다.(오광혁, 『설교의 이념과 목적의 구조적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8, 1999) 법륜이 유머와 함께 사용하는 적절한 비유와 은유와 <즉문즉설>의 문답법도 붓다의 대기설법 방식과 무관치 않다.

목의 비유³⁸⁾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설법 또한 깨달음을 위한 것이니 그것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붓다의 수사학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필자가 보기에 법륜의 <즉문즉설>은 권위 주의적인 방법을 버리고 보다 쉬운 대중의 언어로 중생에게 깨달음을 전하고자 했던 붓다의 설법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앞으로 고를 달리하여 진행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즉문즉설>의 설득 요인은 수사학적 측면에서 거칠게 고찰한 것에 불과하다.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설득 요인을 검토하고 그 한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륜이 전하는 메시지 그 자체의 ‘로고스’를 살펴보는 일이 우선적 다음 과제임은 물론이다. 또 수사학의 주된 설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중이 누구인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일도 과제로 남아있다. 설득의 완성된 평가는 수용자인 청중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38) 『금강경』에 나오는 비유로 “수보리아, 내 가르침(설법)은 뗏목과 같다. 그러니 법도 버려야 한다. 하물며 법 아닌 것임에랴”라고 하고 있다. 강을 건널 때 중요한 뗏목도 강을 건넌 후에는 필요하지 않듯이 붓다의 설법 또한 방편일 뿐이라는 뜻이다.

【참고문헌】

- 강기선, 「十二分教의 수사기법과 붓다의 교화방법」,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4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1, pp.157-182.
- 강태완, 『설득의 원리』, 페가수스, 2010, pp.1-304.
- 고영섭, 『불교경전의 수사학적 표현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구현정, 「유머 담화의 구조와 생성 기제」, 『한글』248, 한글학회, 2000.6, pp.159-184.
- 김윤희, 「고대 연설에 나타난 설득의 방법적 요소(pistis)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34,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pp.259-286.
- 김응철, 「한국 불교의 포교현황과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선문화연구』3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7, pp.1-47.
- 김 현, 「동서양 비교수사학의 출발점에 대한 제안」, 『서강인문논총』26집,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pp.159-189.
- _____, 「서양 고대의 레토리케 전통 고찰과 한국의 수사학 전통 이해를 위한 제안」, 『수사학』3집, 한국수사학회, 2005, pp.119-136.
- 문영식, 「수사학의 활용방식으로서 설교와 설득의 문제」, 『신학과 철학』18, 서강대 신학연구소, 2011, pp.159-185.
- 박경준 · 정현열 · 김은경 · 박경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불교포교 고찰」, 『한국선학』28, 한국선학회, 2011, pp.403-450.
- 박경준, 「대승불교사상과 사회참여 일고」, 『불교학연구』24호, 불교학연구회, 2009, pp.107-146.
-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0.
- 박수호, 「정보사회에서의 포교 전략과 사이버공간의 활용방안」, 『선문화연구』9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0, pp.65-107.
- 박우수, 「동서양 수사학 전통에서 본 에토스와 문화」, 『외국문화연구』26,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7, pp.185-207.
- 법 률, 『깨달음』, 정토출판, 2012.
- _____, 『즉문즉설』, 정토출판, 2006.
- _____, 『불교와 환경윤리』, 녹색평론사, 1998.
- _____, 「남북통일 문제와 불교」, 『불교학연구』2호, 불교학연구회, 2001, pp.55-75.
-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쾌락과 칭찬」, 『철학』93집, 한국철학회, 2007,

pp.71-93.

송두호, 『종교지도자의 레토릭과 설득의 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67, 한국기독교 학회, 2010, pp.247-262.

Aristotle, Rhetoric, 『수사학』1,2,3, 이종오 역, 리젠펜, 2007.

키케로, 안재원편역, 『수사학』, 길, 2006.

양태중, 『수사학의 오늘과 내일』, 『독일어문학』27, 한국독일어문학회, 2004, pp.331-355.

윤영해, 『한국불교의 도심포교와 대중화 연구』, 『불교연구』26, 한국불교연구원 2007, pp.175-203.

이현정, 『포교활성화를 위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법사의 설법을 중심으로-』,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1-108.

정순일, 『불교설법의 이론적 기초』, 『논문집』 28, 원광대학교, 1994, pp.9-34.

_____, 『원불교 설교학』,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3.

정인교, 『설교는 수사학을 필요로 하는가?』, 한국수사학회 월례학술발표회, 2004, pp.19-39.

오광혁, 『설교의 이념과 목적의 구조적 연구』, 『교수 논문집』8, 중앙승가대학교 1999, pp.13-36.

Eysenck, H.J., "Appreciation of Humor an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32, 1942, pp.295-309.

Abstract

The modes of persuasion in Monk Beopryun's 'prompt Q & A'
- ethos and pathos -

Lee, Eun-Ja

This paper explores the modes of persuasion in Monk Beopryun's prompt Q & A in the perspective of ethos and pathos.

Ethos, which refers to a speaker's virtue or personality, can be approached in two rhetorical ways. Ethos can mean the speaker's own respectable personality or morality. Ethos can also mean the speaker's persuasive speech skill in gaining credibility from his audience. Monk Beopryun has established ethos through his admirable way of life involved in social activities (such as civil rights movement, environmental movement and unification movement.) His rhetorical strategies in his prompt answers convince his audience to secure his ethos.

Pathos is another mode of persuasion, which is related to the audience's emotional change. Bomnyun accomplishes pathos through his unique tension-relaxation technique. In his prompt Q & A, Bomnyun wins the favorable responses from his audience by creating tension with his denial and scolding rather than his acknowledgement or empathy. This tension becomes afterwards loosened through his great sense of humor. The effect of his humor reaches the climax when his audience feel that his witty remarks are absolutely beyond their expectations to a religious person who is supposed to give holy and solemn lessons. Listening to Bomnyun's repetitive scolding and humor, his audience feel freed from their agonies.

The ultimate aim of Monk Beopryun's answers through ethos and pathos is to help his audience realize that their agonies and sufferings are caused by the vanity of human ambition and, as a result, help them lead their lives in happiness. Monk Beopryun's prompt Q & A has brought Buddhist theories

out of cloistered temple into the ordinary people's life. This practice seems to be in line with Mahayana Buddhism. It is also similar to the Buddha's preaching.

Key Word : Monk Beopryun, Prompt Q&A, rhetoric, ethos, pathos

이은자

소속 :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교양교육원 조교수

주소 : (140-742)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숙명여자대학교 140-742

전화번호 : (02) 2077-7345 / 010-2968-2159

전자우편 : leeeunja@sookmyung.ac.kr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
--

